다산포럼

임현진

예언자적 리더십을 기대하며

한국이 '20-50클럽'에 가입했다고 호들갑이다. 물론 인구 5000만 이상의 나라로 일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넘은 국가가 역사상 모두 7개국에 불과하다니 흥분할 만하다. 그러나 작금의 출산율로는 인구 5300만 까지는 가능하지만 15년 후에는 유지하기가 어렵고, 또한 고령화 추세로 보면 일인당 국민소득 2만 달러를 3만 달러로 올려놓기도 쉽지 않다.

주지하다시피 세계경제는 위기에 놓여 있다. 이것은 불황을 넘어 장기간의 대공황으로 치달을 수 있다. 유럽, 미국 뿐만아니라 중국, 브라질, 러시아, 남아공 등 신흥국들도 적어도 5년간은 저성장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일종의 '위기의 거대폭풍'(perfect storm)이 세계를 뒤엎고 있는 것이다.

우리 경제도 엄청 어렵다. 1000조 원 가계부채와 1000억 달러 국가부채의 위험을 안고 있고, 계속되는 소득 불평등에 따라 계층의 양극화로 인해 위아래 사이의 완충역할을 해 줄 중산층은 줄어들고 있다. 한국이 일본의 '잃어버린 10년'처럼 낮은 성장으로 이어지는 이른바 L자형 장기침체에 마주할 수 있다.

이처럼 미래 한국의 사활을 걸만큼 중요한 시기에 우리는 대선을 치르게 되어 있다. 그러나 불과 다섯 달을 앞두고 여야 정당은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 대통령 출마 후보자마저 선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대세론' 아래 정몽준, 이재오가 경선을 거부하고 김문수, 임태희, 김태호 등이 참여하는 가운데 8월 20일에 대의원·당원 투표를 중심으로 후보선출을 할 예정이다.

민주통합당은 문재인, 손학규, 정세균, 김두관 등 유력후보자들이 결선투표제 도입에 합의함에 따라 9월 23일 국민경선을 치를 계획이다. 그러나 안철수 교수가 출마 의사를 내보임에 따라 민주통합당은 물론이고 새누리당도 경선 과정에서 새로운 도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제18대 대통령이 될 후보자는 세계경제의 위기 아래 성장과 복지의 동반 달성과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정착시켜야 하는 막중한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나 대선 후보자들은 개인의 권력동기는 강한데 국가의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의 실체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국민행복', '공평과 정의', '민생과 통합', '평등국가', '분수경제' 등 출마변을 담은 키워드는 나와 있지만, 그것을 어떠한 정책으로 실천하려는지 전략과 방법이 아직 제시되어 있지 않다.

"요즘 후보 이름 가리고 출마변을 들으면, 여당인지 야당인지 구분이 안간다"라는 어느 일간지 기자의 말마따나 경제민주화는 기본이고 모두 복지와 분배, 그리고 재벌개혁을 논하고 있다. 이쪽에서 한마디 하면 저쪽에서 더 보태는 방식으로 국민의 이목을 끌어들이는데 그쳐 후보의 자질과 인품은 물론 비전과 정책이 무엇인지 차별화되지 않은 채 공허한 구호만 요란할 뿐이다.

우리는 위기는 기회라는 말을 자주 들어왔다. 혼돈과 갈등의 시기를 맞이하여 대권후보라면 적어도 시대정신에 걸맞게 체제전환을 위한 비전과 철학, 그리고 정책과 방법론을 갖고 앞길을 열어주는 튼실한 모습을 보여주어야 한다. 국민을 현혹하는 일과성 쇼나 이미지 정치를 위한 정치공학으로는 현상타파가 어렵다. 우리는 기득권을 넘어설 수 있는 미래창발적 예언자(豫言者) 리더십을 필요로 한다.

비교지평에서 볼 때 민주화에 관한한 한국은 성공한 나라로 평가되고 있다. 제3파 민주화라는 후발주자이지만 지난 25년간 두 번에 걸친 여야 사이의 수평적 정권교체를 통해 민주주의를 절차적 수준에서 정착시켜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의 '자유의 집'(Freedom House)이 발표한 2011년 세계 민주주의 현황을 보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권리는 양호하지만 시민적 자유는 그렇지 못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즉, 참여와 경쟁이 선거를 통한 대표선출로 이어지는 정치적 권리는 보호되지만, 법치가 지켜지지 않고 위축된 언론의 자유와 시민사회에 대한 위협이 상존한다는 점에서 온전치 못하다는 것이다.

민주화 이후 참여와 경쟁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일부 계층의 이해만이 절차적 민주주의에 반영되는 한계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사회적 권리(시민권)나 경제적 급부(복지)의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이다. 올해 말 대선에서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미래 한국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체제전환에 나설 수 있는 선취적, 희생적, 통합적 리더십을 기대해 본다. 〈서울대 교수·사회학〉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사설

여수박람회 사후활용 대책 서둘러야

여수박람회 폐막이 다가오고 있지만, 박람회장 사후활용 방안 마련이 지지부진하다. 정부 차입금 변제를 위해 박람회장 일부 부지를 팔아야 하나 매수 주체인 기업이 나타나지 않은데다 일부 시설 건립비도 국고에 반영되지 않아 계획마저 구체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여수박람회 조직위는 최근 사후활용 관련 용역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했고, 일부 부지를 매입하게 될 민간기업을 섭외 중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민간기업 유치가 여태껏 이뤄지지 않아 폐막 후 9월께 박람회장을 재개장한 뒤 매매 기업을 섭외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처럼 기업들이 매입을 꺼리는 것은 경기침체와 함께 박람회 흥행 부진 때문이다. 개막전 1000만 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데다 수도권과 떨어져 있는 지리적 한계도 기업들이 기피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민간기업을 찾지 못할 경우 사후활용은 장기 표류할 수 있고, 정부·지자체가 운영을 떠안아 시설의 유지·보수 비용만 드는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기에다 전남도가 국제관을 국제해양관광센터로 만들고, 한국관을 해양재난안전체험센터로 리모델링하기 위해 국토부에 요청한 233억 원의 예산도 내년도 국고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는 행사기간 많은 관람객 유치 못지않게 효율적인 사후활용을 통해 지역발전을 이끌어내자는데 의미가 크다. 애초 박람회장에 복합 해양관광레저타운을 조성해 여수를 '해양관광 및 관련 산업의 메카'로 개발하려 한 것도 바로 이런 취지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최선의 사후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행사 후 건물만 덩그러니 남고 인적이 끊긴다면 실패한 박람회로 낙인 찍히지 않겠는가. 그건 대전박람회가 남긴 교훈이기도 하다.

광주시 '3D 사업' 72억 원 날릴 판인가

무리한 투자 논란에 휩싸인 광주시의 한·미합작 '입체영상 변환(3D컨버팅) 사업'이 좌초될 위기를 맞고 있다. 광주시가 미국 파트너 업체의 기술력을 끝내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72억 원에 달하는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 채 물거품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미국 현지 방문을 마치고 최근 귀국한 노희용 문화관광체육정책실장은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파트너 업체인 K2AM의 자금난으로 벤더(판매상)들과 자금관계가 원활하지 않아 기술력 검증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게다가 K2AM은 당초 알려진 것과는 달리 원천 기술력을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만만치 않다. 광주시가 원천 기술이 있다고 적극적으로 홍보했던 것과 판이하게 다르다. 철저한 검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문제는 K2AM의 지금까지 행태로 볼 때 '사기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이다. K2AM은 광주시가 지금까지 송금한 650만 달러(72억 원) 외에 추가로 460만 달러(50억 원)를 보내주면 기술력을 입증하겠다고 배짱을 부리고 있다. 또 광주시가 투자한 콘텐츠 제작기업인 갬코와 맺은 계약서에 3월 말까지 본격적인 사업이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약속도 이행하지 않은 채 검증시한을 6월 말로 미뤘다.

시민단체와 의회가 사기 가능성을 언급하며 기술 확인 없이 K2AM에 무리한 투자를 한 광주시에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광주시는 이 사업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통해 계약 과정과 실행 여부 등을 공개해야 한다. K2AM에 끌려다니는 것도 모라자 시간을 벌겠다는 속셈이라면 의혹만 키울 뿐이다. 총인시설 입찰비리와 수돗물 오염사태 등으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는 시민들로선 이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네팔에서 온 편지 ⑳

박행순

네팔에서 만난 제자들

네팔에서 고향 사람들을 만나고 여고 동창들을 만나는 것은 큰 기쁨이었다. 대학에서 가르친 제자들을 만났을 때, 그것은 기쁨을 넘어 감격으로 다가왔다. 제자 다섯을 포함하는 여덟 명이 6월 말경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 트레킹을 오겠다고 이메일을 보내왔다. 이 여행을 주도한 제자는 나더러 같이 가자며 작년 내 정년 퇴임식 때 이런 날을 기대하면서 트레킹화를 선물했었다고 했다. 그 때쯤이면 내가 담당하는 교과 과정도 끝나고 일정이 미리 약속이나 한 듯 맞아 떨어졌다.

그러나 결국 나는 트레킹을 포기했다. 작년에 같은 코스를 올랐던 여고 후배의 속 깊은 충고 때문이었다. 험한 코스를 무리한 일정으로 따라나섰다가 낙오하면 제자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은근히 나를 만류했다. 나는 그 조언을 고맙게 생각하고 받아들였다. 나의 일시 귀국 일정을 일행과 맞추고 트레킹 대신 하루 밤을 같은 호텔에서 묵는 것으로 절충을 보았다.

같이 산을 오르면서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놓쳤으므로 나는 메일을 썼다. 전직뿐 아니라 현직도 교수인지라 제자들을 가르치고자 하는 열정은 식을 줄을 모른다. 이제는 가르치고자 하는 주제가 세상 학문이 아니라 영적인 내용들로 바뀌었을 뿐이다. 질서정연하게 운행되는 자연계와 천지 만물을 보면 창조주의 존재를 미루어 알 수 있지 않으냐며 산을 오르면서 창조주를 묵상하라고 했다. 제자는 예나 다름없이 순하고 착하게도 그러마 하고 했다. 흘려듣지 않고 진심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느꼈다.

40대 중반의 제자들을 카트만두 국제공항에서 만나던 날, 우리는 환호성을 지르고 서로 얼싸안으며 반가워했다. 네팔 복장 '꿀따'를 입고 머리를 묶은 나의 모습을 보고 "현지인 다 됐다"라고 놀라면서 "언니"라는 호칭이 튀어나왔다. 내가 만든 갓김치와 깍두기를 건네면서 나 역시 잠깐 '언니'가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졌다.

처음 2~3일은 지금 어디쯤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소식을 전해오더니 이후에는 아예 전화 연결이 되지를 않았다. 6월 중순부터 우기라서 매일 비가 오는 것이 여간 신경이 쓰였다. 다행히 일행은 엿새 동안의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예정대로 돌아왔다. 그 빗속에서 4130m의 안나푸르나 베이스캠프를 전원이 다녀온 것이다. 여행사에서는 한국 사람들이니까 그런 무리한 여행상품도 감당할 수 있어 추진한다고 했고 팀은 차질 없이 그 일정을 소화해 냈다.

귀국 전날, 우리는 관광객들이 북적대는 '타멜'에서 하루를 보냈다. 길거리를 손을 잡고 함께 거닐고 식당 경복궁에서 제육볶음에 에베레스트 맥주를 곁들여 식사를 했다. 식사도중에 전기가 나가자 촛불을 밝히니 더욱 분위기가 고조되고 이야기에 흥을 돋웠다. 하루에 열 시간 이상을 가파른 산길을 오르면서 고생한 이야기, 그 바쁜 일정 중에도 히말라야 토종닭에 마늘을 넣고 백숙을 삶아 먹은 이야기, 옷 속을 파고드는 거머리에게 헌혈한 이야기, 고산병, 말로만 듣던 네팔의 번다(스트라이크) 이야기 등이 이어졌다. 이십여 년 전처럼 그들은 똑똑하고 씩씩하고 자신감에 넘쳐있어서 나까지 덩달아 기운이 솟는 듯하고 행복했다.

6월에 트레킹을 하기는 좋지 않지만 이를 보상이라도 하듯 맛있는 망고를 실컷 먹을 수 있다. 값도 싸서 1킬로에 100루피, 우리 돈 1500원이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망고를 잔뜩 샀다. 겉은 시퍼렇게 생겨서 덜 익은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잘 익어 샛노랗고 과육은 새콤 달콤 맛있다. 우리는 과즙이 뚝뚝 흐르는 망고를 원없이 먹으면서 네팔의 마지막 밤을 마무리했다. 나의 귀국길은 제자들과 함께하면서 기쁨이 배가 되었다. 그러나 며칠이 못 가서 내 마음은 다시 네팔로 향한다.

〈파탄의대 객원 교수·전남대 명예교수〉

無等鼓

'레전드' 무라타

환갑을 훌쩍 넘긴 늙은 투수가 마운드에 올랐다. 왼발을 크게 들어올리고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한 이상한 투구폼. 그러나 볼 스피드는 놀랍게도 시속 130km에 가까웠다. 지난 2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한·일 프로야구 레전드 매치' 일본팀 네번째 투수 무라타 쵸지(63)의 투지는 팬들을 매료시키기에 충분했다.

무라타는 혼신을 다해 38개의 볼을 던졌지만 잇따른 수비 실책 속에 2실점 했다. 겨우 한 이닝을 마무리한 그는 웃음을 잃지 않으며 더그아웃으로 들어갔다. 그가 일본 프로야구에서 거둔 성적은 22시즌 동안 604경기 3331과 3분의1이닝, 215승 177패 33세이브. 다승왕 1번을 비롯한 4번의 탈삼진, 3번의 평균 자책점 타이틀이 대표적인 기록이다.

63세 무라타의 지난날을 거슬러보면 노익장의 원천을 알 수 있다. 무라타는 후쿠야마 전파공고 시절 152~153km의 강속구를 지녔지만 히로시마현에는 강호들이 즐비해 일본 고교야구 최고인 고시엔 무대는 밟지 못했다.

1967년 도쿄 오리온스(지바 롯데 전신)에 입단한 후 이듬해에는 3경기 등판에 그칠 정도로 부진했다. 실의에 빠져 파칭코, 마작으로 날을 새기 일쑤였다.

어느 날 마작판을 끝내고 새벽에 기숙사로 돌아오던 그는 15살이나 많은 베테랑 투수 코야마 마사아키가 조깅을 준비하는 모습에 충격을 받고 진지하게 훈련에 임했다.

그 덕분에 1969년 6승으로 두각을 나타냈다. 무라타는 1982년 팔꿈치 인대접합 수술을 받았지만 투혼으로 현역생활을 계속하다 1990년 은퇴했다. 그는 지금도 하루에 팔굽혀펴기 500회, 복근 운동 1000회 등을 체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지금이 당신 인생의 핀치라고 생각한다면 '레전드' 무라타가 어떻게 위기를 탈출했는가를 떠올려 보라.

/박치경기자 unipark@kwangju.co.kr

기 고

강진원

명품청자, 저렴하게 구입하세요

오는 28일부터 8월 5일까지 9일간 강진청자 도요지(국가사적 제68호 지정)에서 '제40회 강진 청자축제'가 열린다.

청자축제는 지난 2002년부터 문화관광부로부터 9년 연속 전국 최우수 축제로 선정된 후 지난해부터는 한층 더 격상된 명품축제로 지정됐다. 올해 행사는 6개 분야 100개 단위 행사로 열리는데 관광객 맞을 준비를 벌써 마치고 지금은 마무리 점검이 한창이다.

올해 강진청자축제 프로그램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명품청자를 저렴하게 판매하는 특별 이벤트다. 청자축제 기간 동안에 한해 행사장 내 명품관과 31개 개인요 판매장에서 평소보다 30% 할인된 가격으로 특별할인판매를 하는 것이다.

특히 30% 세일판매는 청자축제가 2년 연속 대한민국 명품축제로 선정된 것을 기념하고, 청자가 고가품인 관계로 선뜻 구매하지 못한 관광객과 애호가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명품청자를 소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강진군과 개인요 업체가 오랜 협의 끝에 역대 축제에서 시도되지 않은 최초의 행사다.

또한 정상 판매가의 50%부터 시작되는 청자 즉석 경매를 활용하는 방법도 강진 명품청자를 소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즉석경매는 축제기간 동안 매일 1회 실시하며, 청자매병과 주병·향로·화병 등 대표적인 청자작품을 작가가 직접 설명을 덧붙여 경매에 참여하는데 운 좋으면 고가작품을 저렴하게 횡재할 수도 있다.

명품으로 대접받고 있는 강진청자는 몸에 좋은 다량의 원적외선과 음이온이 방출돼 실온에서 장기간 물을 보관해도 물이 상하거나 변하지 않는다. 오히려 알칼리 이온수처럼 물맛이 부드러워지고 마신 후 흡수율이 좋아 산성화된 체질을 중화시켜 주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최근에는 생활자기로도 각광을 받고 있다.

청자는 성형·조각·소성 등의 총 24개 과정을 거치는데, 다양한 형태의 문양에 흙을 채워 굽는 전통 상감기법으로 800도에서 1차 굽기(초벌구이) 후 유약을 발라 1300도에서 48시간 이상 화목으로 불을 지펴 구워낸다. 이 과정에서 한 가지라도 소홀하거나 온도를 맞추지 못하면 청자 고유의 비취 빛을 낼 수 없고 균형미를 잃어 작품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현장에서 파기된다.

강진청자는 통일신라 후반기인 9세기께부터 고려말 14세기께까지 500년간 전성기를 누렸다. 현존하는 국내 청자가마터 200여기 중 50%인 188기가 강진에 분포돼 있고, 현재 국보로 지정된 청자의 80% 이상이 강진에서 생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강진에는 과거 관요(官窯)인 청자박물관을 비롯해 30여개 요업체가 하나의 마을을 이루어 전통과 현대적 기법으로 청자를 구워내고 있다.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 한 청자축제 외에도 다산초당, 영랑생가, 청정해역 강진만 등 발길 닿는 곳마다 문화유적이 널려져 있는 강진!

올해 강진 청자축제는 여느 여름에 느끼지 못했던 남도의 멋과 추억, 그리고 흙과 불 인간이 빚어낸 천년의 신비를 고스란히 간직한 강진 명품청자를 보다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강진군수〉

'법의 사각지대' 퀵서비스 법제화 서둘러야

간단한 서류에서 사람까지 수송하는 퀵서비스. 대입시 수능 시험을 볼 때 막힌 길을 뚫고 시험장까지 데려다 주는 것도 퀵서비스다. 누구나 손쉽게 이용하면서 시장 규모가 연간 3조 원 규모라니 그 크기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그 중요성이나 역할에 비해 영업을 하는 사람들은 법적인 보호장치가 없어서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래서 이미 오래전부터 이 퀵서비스를 합법화하자는 얘기들이 있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같은 영업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사실이다. 동네 유치원생도 아는 업종이고, 시장규모가 3조 원이나 되는데 이 업종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다.

서류나 물건을 나르는 것은 화물 운송으로 볼 수 있지만 오토바이는 화물차운수사업 법에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이라 한다.

그래서 퀵서비스 사업주들이 이륜차(오토바이)를 화물운수법에 포함해 줄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 사단법인화를 통해 요금 등 업계기준을 만든다는 계획도 내놓는다.

이런 법적인 조치와 함께 업계의 기준, 퀵서비스 회사의 법인화가 중요해보인다.

그렇지만 퀵서비스로 영업을 하는 당사자들은 거기에 반대한다. 그 이유는 이런 법적인 가이드라인이 결국에 업주들의 이익만 키워줄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현재도 매출의 23%를 수수료로 내고 있다. 그런데 여기다가 법인화까지 해서 퀵서비스 종사자들이 그 안에 들어가 종속이 되면 각종 수수료만 인상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그런 와중에 퀵서비스 오토바이는 오늘도 위험한 곡예질주를 하면서, 물건의 파손이나 분실, 혹은 지연 등의 여러 문제점을 발생시킨다.

이에 대해 퀵서비스의 법제화에 앞서 업주와 종사자 사이의 이런 갈등과 우려를 해소할 정부차원의 적절한 방안이 나와야 할 것이다. 그래서 퀵의 법인화하여야만 소비자들도 더 안심하고, 더 빠르고, 더 우수한 시스템 속의 퀵서비스를 이용할 것이다.

▲오수정·광주시 북구 운암동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논설주간 申港樂 편집국장 曺庚完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문화생활부 2200-661
편 집 부 2200-649 여론매체부 2200-621
정 경 부 2200-612 체 육 팀 2200-697
〈대표 FAX 222-4918〉 사 진 부 2200-693
사 회 부 2200-616 조 사 부 2200-571
〈대표 FAX 222-4267〉 전 산 팀 2200-685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홍보국 2200-541
〈F A X 222-8005〉 〈F A X 222-0195〉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 A X 227-9500〉 〈F A X 227-9500〉
디 자 인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기획사업국 2200-555 〈F A 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